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매우 더웠다

제목 : 즐거운 일요일

어제 외갓집에 다녀오는 바람에 오늘 도장을 하였다

외갓집은 경상남도 창원시 리내였다

서울에서 시내까지 거리는 자동차로 약 5시간이 걸리었다

비행기로는 약 1시간 거리인데 너무 비싸서 잘 안된다. 5만원이나

한다... 서울에서 대전, 대구, 창원을 거쳐서 와야지 울루 있는 곳

였다 또 너무 먼길 이어서 그만지 휴게소를 들었다 휴게소에서

아버가 아이스크림을 사 주었다.

또 또 도착해서 맛있는 과일도 먹고 칸와 학교 놀이터에서 키크방,

미끄럼틀, 구름사다리를 타며 재밌게 놀았다

또 교회로 가서 기도도 하고, 마트를 갔다.

홈플러스는 문이 안열려 있었고 그래서 이 마트에 갔다

이 마트에서 영아의 화장품을 사 동생의 생일도 샀다

역시 일요일이 제일 좋은 것 같다.